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7 월 5 주차

-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향후 미국 증시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FDA 허가 심사 경로 확보, 디지털리얼티, 데이터센터 신규 공급 제한에 따른 희소성 부각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 [미국주식] 일라이 릴리, [글로벌리츠] 디지털리얼티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운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메모리 삼국지 혼돈 CXMT, AI 서밋 혼풍에 제동

- 빅테크 협력 기대에 AI주 강세, CXMT 상장에 반도체 상승 제한
- 미국-이란 충돌 소강 국면, 협상 기대감에 국제 유가 하락
- 실적 기대와 지정학 리스크 완화, 업종별 차별화 뚜렷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26 Review] LG 이노텍: 3Q 성장은 가속화

- 2Q26 영업이익은 2,457억원(+2057%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 2H26 영업이익(6,953억원)은 31.6%(yoy) 증가 추정, 카메라/기판의 호조
- 2026년 / 20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구간으로 전망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두산: 견고한 본업, 부각되는 광모듈 (목표주가 -17.1% 하향)

-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가치 감소로 TP -17.1% 하향
- 광모듈향 매출 기여도 급증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부각
- SK실트론 인수 확정될 경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2Q26 Review] 우리금융지주: 약점을 딛고 도약

- 2분기 순이익 1조원 달성, 비이자 호조로 추정 및 컨센 큰 폭 상회
- NIM 상승 제한, 기업대출 경쟁보다는 선제적 조달 영향
-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 계열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한 실적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0원 유지
- 신제품 · 트룩시마 호조로 2Q 실적 컨센서스 상회
- 상저하고 흐름,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률 개선 전망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7월 5주차

-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향후 미국 증시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FDA 허가 심사 경로 확보, 디지털리얼티, 데이터센터 신규 공급 제한으로 희소성 부각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China ETF, 일라이 릴리, 디지털리얼티

[글로벌전략]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미국 증시의 변동성 키우는 요인 예상

미국 증시(S&P500)는 6월 이후, 7,230~7,620p 밴드 안에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패턴 흐름이 지속 중. 특히 6월에서 7월로 넘어 오면서 증시 변동 폭은 축소되고 있고,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는 모습이라서 빠르면 7월 마지막 주, 늦어져도 8월 첫째 주에는 미국 증시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 23일 발표된 트럼프 301조 관세는 건전한 조정 구간에 놓였던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지난해 3~4월 미국 증시 급락에는 트럼프 관세 부과가 배경이었다는 점을 상기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당의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중앙정치국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에 열리는데, 특히 지난 분기의 경제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의미가 큰 4월, 7월, 12월 회의의 중요성이 큼. 7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상반기의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 이번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미국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중심' 정책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

[미국주식] 일라이 릴리(LLY):레타트루타이드 TRIUMPH-2 · 3 상 긍정 결과, 인크레틴 프랜차이즈 차세대 자산 FDA 경로 확보

비만 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 핵심 3상 두 건 동시 통과로 FDA 허가 심사 경로 실질적 개방. 분기 매출 64%가 두 제품에 집중된 구조, 차세대 자산 상업화로 리스크 분산 기반 마련. 예상이익의 24.5배, 5년 평균(37.4배) 대비 저평가, 성장 우려 해소 시 재평가 여지. 세부 체중 감량률 · 안전성 데이터 공개 시점, FDA 허가 신청 일정이 재평가 관건

[글로벌리츠] 디지털리얼티(DLR): 뉴욕 데이터센터 규제로 데이터센터 리츠 희소성 부각

7월 15일, 뉴욕주는 50MW 이상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하는 미국 최초의 주 단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발표, AI 수요는 지속되는 반면 전력망 · 인허가 제약으로 신규 공급이 제한되며, 기존 데이터센터와 개발권을 확보한 데이터센터 리츠의 희소가치 확대 전망. DLR은 글로벌 빅테크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 공급 제한에 따른 기존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더욱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임대료 협상력과 장기 현금흐름 개선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메모리 삼국지 흔들 CXMT, AI 서밋 훈풍에 제동

- 빅테크 협력 기대에 AI주 강세, CXMT 상장에 반도체 상승 제한
- 미국-이란 충돌 소강 국면, 협상 기대감에 국제 유가 하락
- 실적 기대와 지정학 리스크 완화, 업종별 차별화 뚜렷

빅테크 협력 기대에 AI주 강세, CXMT 상장에 반도체 상승 제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빅테크 협력 잇따라 발표. SK그룹은 엔비디아와 5,000억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최대 2천억달러 규모의 AI 협력을 체결. 네이버도 엔비디아, 브룩필드와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인프라 조달을 추진하며 AI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 한편 금일 CXMT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공모가 대비 +46% 급등 마감. 시가총액은 3.3조위안으로 중국 본토 증시 1위에 등극. CXMT는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고, 노무라증권도 P/E 20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116위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

AI 서밋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은 AI 관련주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CXMT 상장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은 제한.

AI 서밋 관련주: NAVER(+8.4%), 삼성전자(+1.8%), SK하이닉스(+3.2%)

미국-이란 충돌 소강 국면, 협상 기대감에 국제 유가 하락

중동에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후티군사시설을 공습. 이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지잔·안부의 아람코 시설을 공격하며 전선 확장 우려가 고조. 다만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 계획의 승인을 보류하고, 이란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하면서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진입.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단이 이란에 도착한 직후 이뤄졌고, 일각에서는 중동에 배치된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악화 우려가 공습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협상 재개 기대가 확산되면서 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83달러, 86달러 수준까지 하락. 유가 부담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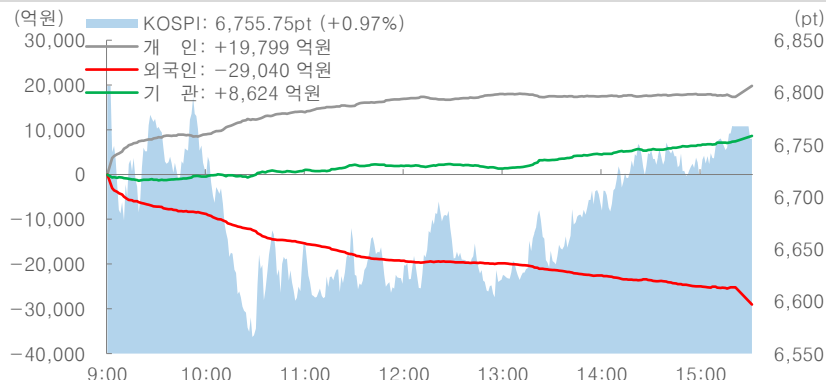
실적 기대와 지정학 리스크 완화, 업종별 차별화 뚜렷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업종에 실적 기대감 유입. 반면 중동 긴장 완화로 정유·방산 업종은 하락하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뚜렷.

화장품: 아모레퍼시픽(+4.7%), 달바글로벌(+7.9%), 코스맥스(+7.9%)

정유/에너지: SK이노베이션(-10.3%), S-Oil(-9.8%), OCI홀딩스(-17.6%)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이노텍
(0110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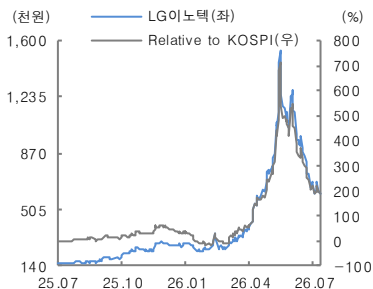
614,000

(26.07.27)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755.75
시가총액	14,53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1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30,000원 / 152,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64억원
외국인식분율	28.08%
주요주주	LG전자 외 1 인 40.80% 국민연금공단 9.9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4.0	14.6	138.4	300.5
상대수익률	-17.9	12.2	79.5	89.5



3Q 성장은 가속화

- 2Q26 영업이익은 2,457억원(+2057%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 2H26 영업이익(6,953억원)은 31.6%(yoy) 증가 추정, 카메라/기판의 호조
- 2026년 / 20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구간으로 전망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300,000원 유지

2026년 2Q 매출(5.53조원 +40.5% yoy/-0.1% qoq)과 영업이익(2,457.5억원 +2057% yoy/-16.8% qoq)은 종전 추정(매출 5.48조원 / 영업이익 2,447억원)에 부합, 그리고 컨센서스(매출 4.97조원 / 영업이익 1,823억원)대비 각각 11%, 33%씩 상회한 호실적으로 평가. 2Q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 성장은 중요한 의미로 판단. 2026년 2Q 및 상반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역성장을 한 가운데 2Q 기준으로 최고 매출은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 및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그리고 반도체 기판의 성장이 예상 상회해 기인. 2Q 호실적 분위기는 2026년 하반기에 연속될 전망.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1,300,000원, 2027년 주당순이익(EPS) X 목표 P/E 32.6배(역사적 상단의 밸류에이션, 반도체 기판의 프리미엄 부여) 유지. 투자포인트는

2H26 영업이익은 33.9%(yoy) 증가 추정

1) 2026년 하반기 매출은 13.9조원(+7.4% yoy)과 영업이익 6,953억원(+31.6% yoy)으로 추정. 애플의 아이폰 18(프로/맥스) 카메라모듈에 추가로 가변 조리개를 채택, 평균공급단가 상승 예상, 또한 신모델(폴더블폰) 출시로 전체 공급 물량이 증가하여 광학솔루션의 매출은 11.87조원으로 6.7%(yoy) 증가를 추정.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애플 아이폰18 가격 인상이 예상되나 AI 기능의 강화로 교체 수요는 존재한다고 판단. 2027년 애플의 모델별 출시 전략(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변화로 2027년 실적도 성장을 예상

2) 반도체 기판의 성장과 이익 기여도 확대에 주목. SiP 중심의 반도체 기판은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 기판, FC BGA 매출 증가가 추가되면 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2Q6 영업이익은 2057%(yoy) 증가. 광학 솔루션 및 반도체 기판의 호조

2026년 2Q 매출은 5.53조원(+40.5% yoy/-0.1% qoq), 영업이익은 2,457.5억원(+2057% yoy/-16.8% qoq), 당기순이익은 1,696.7억원(흑전 yoy/-26% qoq)을 시현. 매출 가운데 광학솔루션 4.52조원으로 48%(yoy) 증가, 패키지솔루션(기판)은 4,984억원으로 20%(yoy) 증가, 모빌리티 솔루션은 5,109억원으로 10%(yoy) 증가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분정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매출액	3,935	5,535	5,480	5,527	40.5	-0.1	4,974	6,419	19.6
영업이익	11	295	245	246	2,057.4	-16.8	182	330	62.0
순이익	-9	229	173	170	흑전	-26.0	140	242	88.5

자료: LG이노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두산 (000150)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이채리 RA

cherry.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84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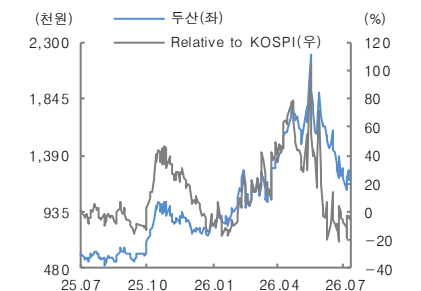
(26.07.27)

1,197,000

지주업종

KOSPI	6755.75
시가총액	21,36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2%
자본금(보통주)	9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203,000원 / 508,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74억원
외국인지분율	21.12%
주요주주	박정원 외 26 인 41.08% 국민연금공단 9.9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0	-24.3	33.1	110.0
상대수익률	3.4	-25.9	0.2	-0.7



건고한 본업, 부각되는 광모듈

-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가치 감소로 TP -17.1% 하향
- 광모듈향 매출 기여도 급증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부각
- SK실트론 인수 확정될 경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840,000원으로 하향(-17.1%)

목표주가 하향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가 하락에 따른 NAV 감소를 반영. 동사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자체사업(전자BG) 영업가치(22.9조원), 지분가치(17.8조원) 등을 합산한 NAV 40.4조원에 Target 할인율 38% 적용하여 산출.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목표주가 조정으로, 하반기 SK실트론 인수가 확정될 경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2Q26 연결 매출액 5조 5,861억원, 영업이익 4,884억원(+37.8 YoY)

전자BG 사업 매출액은 6,760억원(+42.0 YoY, +9.5 QoQ), 영업이익 2,013억원(+47.8% YoY, +8.5% QoQ)으로 1분기에 이어 높은 영업이익률(29.8%) 달성. 전자BG를 포함한 자체사업 매출액은 7,652억원(+37.0% YoY, +9.0% QoQ), 영업이익 2,121억원(+49.4% YoY, +12.9 QoQ)으로 영업이익률 27.8% 시현.

광모듈향 매출 기여도 향상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부각

2분기 광모듈향 CCL 매출액은 49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47.6% 증가. 전자BG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당분기 7.3%를 기록하며, 전년동기(0.9%) 및 전분기(5.4%)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부각되고 있음. 연간 광모듈향 매출액은 약 1,200억원 예상하나 상회 가능성 높음.

전자BG OPM은 이미 PCB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나, 광모듈 등 타 분야 성장을 통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글로벌 피어 대비 우수한 수익성 우위는 지속될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8,133	19,784	21,992	26,300	31,035
영업이익	1,004	1,063	1,918	2,494	2,824
세전순이익	593	490	1,343	1,997	2,334
총당기순이익	302	250	1,046	1,697	2,030
지배지분순이익	-226	76	157	255	305
EPS	-10,562	3,546	7,444	12,076	14,444
PER	NA	220.3	161.6	99.6	83.3
BPS	69,123	72,953	80,780	87,861	92,111
PBR	3.7	10.7	14.8	13.6	13.0
ROE	-14.6	5.0	9.6	14.3	16.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두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우리금융지주 (31614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3,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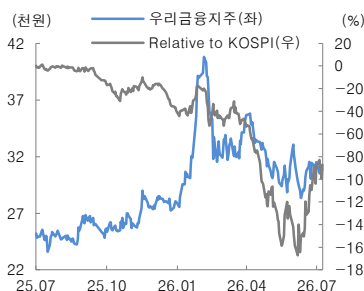
(26.07.24)

30,850

은행업중

KOSPI	6,690.62
시가총액	22,46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4%
자본금(보통주)	3,80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0,800원 / 23,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97억원
외국인지분율	45.89%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우리사주 외 1인 7.76%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7.1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5	-12.0	4.4	21.5
상대수익률	33.5	-14.8	-22.1	-42.1



약점을 딛고 도약

- 2분기 순이익 1조원 달성, 비이자 호조로 추정 및 컨센스 큰 폭 상회
- NIM 상승 제한, 기업대출 경쟁보다는 선제적 조달 영향
-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 계열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한 실적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3,000원 유지

향상된 CET1비율로 상반기 2,000억원 자사주 매입에 이어 하반기 1,500억원 추가 매입 결정. 현금배당 1.13조원(DPS 1,560원), 자사주 매입 3,500억원으로 '26년 총 환원을 46.4% 달성 전망. 빨라진 자회사 통합 시계와 향상된 CET1비율로 '27년 실적개선과 더불어 총환원을 50% 달성 전망

2Q26 지배주주 순이익 1조원(QoQ +66.4% YoY +7.5%) 기록

2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 및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실적호조는 비이자이익 개선이 기인. 비은행 계열사가 경쟁사 대비 적고 특히 최근 금융지주 실적을 견인하는 증권사의 규모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작아 비이자이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은행의 신탁, 펀드 등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당 부문 실적 개선을 견인. 당 분기 6,290억원(QoQ +38.3%, YoY +19.3%)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이자이익은 2,33조원(QoQ +1.4%, YoY +3.3%)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은행 마진이 1.51%로 전 분기와 동일 했음. 동사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 상승에 유리한 면이 있는데, 마진 개선이 제한된 이유는 하반기 기준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4, 5월 정기예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 6개월 미만 단기예금을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도 크게 증가시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마진 확대폭이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3개월 CD금리 기준 대출 비중을 늘려 기준금리 25bp 인상 시 순이자이익 1,600억원, NIM 4bp 상승으로 금리 민감도는 더욱 높아짐(기준 1,400억원, 3bp 영향). 사실 동사는 생산적금융에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 대출 경쟁 심화되어 마진 훼손에 대한 우려 존재할 수 있으나 기업금융에 예전부터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측은 설명

중앙그룹 관련 NPL 1,380억원 발생하였으며 대손비용 440억원 전입되었는데, 2분기 전체 대손비용 4,392억원(QoQ -16.6, YoY -13.7%)으로 예상을 하회. 6월말 CET1비율은 13.7%로 환율 상승에도 1분기 대비 10bp 상승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10,440	10,955	11,393	11,948	12,549
영업이익	4,253	3,688	4,321	4,546	4,794
순이익	3,086	3,140	3,182	3,281	3,455
YoY	22.61	1.76	1.32	3.11	5.32
ROE	9.0	8.7	8.1	8.1	8.6
EPS	4,159	4,278	4,403	4,622	5,005
BPS	45,959	49,092	54,172	57,296	60,891
PBR	0.32	0.57	0.57	0.54	0.51
PER	3.51	6.55	7.01	6.67	6.16

자료: 우리금융지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셀트리온 (068270)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8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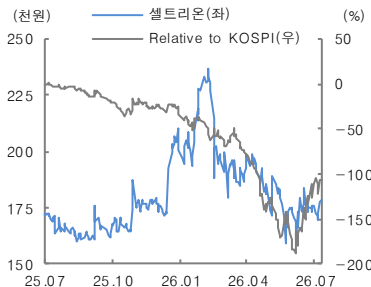
(26.07.27)

178,700

제약업종

KOSPI	6755.75
시가총액	41,55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2%
자본금(보통주)	24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36,862원 / 159,4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72억원
외국인지분율	24.91%
주요주주	셀트리온홀딩스 외 95 인 32.83% 국민연금공단 6.6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7	-8.1	-11.4	5.3
상대수익률	34.1	-10.0	-33.3	-50.2



이익 레벨업,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0원 유지
- 신제품·트룩시마 호조로 2Q 실적 컨센서스 상회
- 상저하고 흐름,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률 개선 전망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12mF EBITDA 2조 4,208억원에 Target multiple 28배를 적용하여 산출.

2Q26 Review: 트룩시마 선방 + 신제품 레버리지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3,937억원(+22% qoq, +45% yoy), 영업이익은 4,518억원(+40% qoq, +86% yoy)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32.4%로 전년 동기 대비 7.2%p 개선되며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시현함.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1조 2,639억원(+43% yoy)을 기록. 수익성이 높은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53%에서 65%로 확대되며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함. 기존 제품군은 매출액 4,390억원(+6% yoy)으로 램시마(Remicade BS)·허주마(Herceptin BS) 매출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트룩시마(Rituxan BS)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M/S 38%)하며 기존 포트폴리오 매출을 방어함. 신규 제품 매출은 8,249억원(+76% yoy)으로, 램시마 SC(infliximab SC) 1,996억원(+24% yoy)과 유플라이마(Humira BS) 1,954억원(+42% yoy)이 처방 확대에 힘입어 실적 성장을 주도함. 또한 Lilly로부터 인수한 미국 생산시설에서 500억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였음.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

2026년 연결 매출액 5조 6,378억원(+35% yoy), 영업이익 1조 8,909억원(+62% yoy), 영업이익률 34% 전망. 하반기 유럽 입찰 물량 반영과 고수익 신제품 믹스 확대에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되며, 이익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하반기 신약 모멘텀으로는, 비만치료제 CT-G32(GLP-1 기반 4중 작용제)의 비임상 결과 학회 발표가 예상되며, 1Q27 내 임상 단계 약물인 CT-P70(cMET ADC)와 CT-P71(Nectin-4 ADC)의 임상 1상 탐라인 결과 도출이 기대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557	4,162	5,638	6,250	6,880
영업이익	492	1,168	1,891	2,267	2,614
세전순이익	576	1,154	2,019	2,402	2,751
총당기순이익	419	1,031	1,615	1,801	2,063
지배지분순이익	423	1,030	1,598	1,782	2,040
EPS	1,703	4,238	6,797	7,661	8,774
PER	101.1	40.7	26.1	23.2	20.2
BPS	70,268	70,827	78,728	86,199	94,089
PBR	2.4	2.4	2.3	2.1	1.9
ROE	2.5	5.9	8.9	9.2	9.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셀트리온,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